

배선기구 전문제조업체 서울산전(주)

서울산전(주)

대표이사 최명철



대표이사 최명철

1993년에 설립된 서울산전(주)는 차단기, 배선기구 전문제조업체로 배선용 차단기, 누전차단기, 주택용 분전반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공장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관련분야 선두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일관된 정책과 철저한 경영방침으로 목표달성에 노력하며 그 동안의 축적된 노하우와 철두철미한 관리로 안정된 바탕위에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다.

“전기제품도 전문화되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서 최고의 품질만이 시장에서의 승리를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선기구 및 차단기류는 국내시장에서의 제한된 경쟁시대는 지나고 저가형 중국제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어 시장 경쟁구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더욱 철저한 기업대응이 최우선의 생존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산전(주) 대표이면서 배선기구협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명철 대표는 이렇게 발문을 열었다.

서울산전 주식회사는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 주택용 분전반 등을 주력 제품으로 전국 유통망 구성과 꾸준한 경영혁신으로 명실상부한 국내 차단기 전문업체로 자리 잡았다.

“고품질 저가격”을 기업경영의 목표로 삼아 완벽한 시험설비, 엄격한 공정관리 및 검사, 모든 제품의 자사 직접생산, 협력업체 100% 현금결제 방식의 운영을 통해 21세기 차단기 업체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변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과 엄격한 환경 기준에 의한 제조공정으로 신뢰와 믿음을 기초로 앞서가며 항상 미래지향적인 제품을 꾸준히 연구, 개발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겠습니다. 실력당시의 '인간존중', '회사사랑'이라는 사훈의 이념아래 21세기를 이끌어가는 환경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라고 향후 계획과 각오를 새롭게 하였다. 

